

19대 국회 개원

19대 국회에 바란다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18대 국회가 '갈등, 폭력, 식물, 둘러리 국회' 라는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 새롭게 시작된다.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는 국회 되길”



강운태 광주시장

역사적 갈림길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제19대 국회가 출범하는 오늘,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19대 국회 출범을 축하한다.

실현해야 할 의정활동의 좌표다. 특별히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에게 보답하

고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 '민심(民心)', 2012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다.

끝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19대 국회를 기원한다.

“합리적 국회 되도록 양보·타협기술 발휘를”



박준연 전남지사

국회의 본래 기능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며 감독하는 일이다.

국회의 권위가 실추돼 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눈도 냉소적이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실추된 상태다.

따라서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 반세기 가 됐다. 국회가 극단적인 싸움을 지양하고 서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양보와 타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때다.

19대 국회가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국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회복·사회 양극화 해소 나서야”



조정관 전남대 교수

제19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빼앗긴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정치권력을 찾아오는 것이다.

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

야 한다. 정쟁만 일삼는,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아닌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호남지역은 현 정권의 지역차별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김기홍 경실련 사무처장

제19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핵심적 의제는 무늬만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을 반드시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게 없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차별 없는 복지 대안 제시다. 지방재정이 줄면 복지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 등 지방재정에 따른 복지대책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과 상관 없이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다

광주일보는 19대 국회 개원을 나올 앞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범례
①국회활동
②입법
③지역현안 대응

CGI 센터·문화 연구원 설립

장병완 (민주통합·남구)



①18대 국회 때 여당의 날치기로 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필수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 19대 국회에선 예산안 날치기 재발을 막겠다.

광주역, 송정역으로 일원화

김동철 (민주통합·광산 갑)



①치열한 민생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수권역량을 평가받는 정당과 국회로 거듭나도록 입장 서겠다.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고민

김성근 (민주통합·여수 갑)



①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백운산 연습림 되찾을 것

우윤근 (민주통합 광양·구례)



①'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 모임을 구성, 여·야간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창조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

당론·계파 지양 정치 펴겠다

황주홍 (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



①당론의 노예가 되는 정치를 개선하겠다. 또 계파정치를 지양,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파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박준선 (동구·무소속)



①약속 지키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당파 이익떠나 서민 위할 터

강기정 (민주통합·북구 갑)



①19대 국회에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당파의 이익 대신 서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생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광산 산업인프라 육성

이용섭 (민주통합·광산 을)



①정치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회,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회, 밀어붙이기 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지방재정 확충 입법 노력

주승용 (민주통합·여수 을)



①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청렴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은 김근태 의원의 치엄 역할을 하겠다.

농어촌부흥세 신설하겠다

이낙연 (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①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광주~완도 고속도 조기 착공

김영록 (민주통합 해남·완도·진도)



①19대 국회에선 농어민과 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재벌 특혜와 한중 FTA 협상 저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인재 '로제타 플랜' 수립

박혜자 (민주통합·서구 갑)



①12월 대선에서 국민의 열렬한 정권교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중기·소상공인 보호 앞장

임내현 (민주통합·북구 을)



①뭍싸움과 날치기가 없고 당리당략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연말 대선 정권교체 총력

박지원 (민주통합·목포)



①국민은 여야에 150대 140의 황금분할 구도를 줬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배기운 (민주통합 나주·화순)



①책임지지 못할 공약과 정치적 발언을 남발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국회가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흥우주산업 국책사업 노력

김승남 (민주통합 고흥·보성)



①무분별한 의원발의 건수가 늘고 있다. 19대 국회에선 불필요한 의원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민생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농어가 부채 문제 적극 해결

이윤석 (민주통합 무안·신안)



①현 정부 들어 부정과 비리,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파헤쳐졌는데,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최권일·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